원 · 자 · 력 · 의 · 학 · 원

화생방방호사령부와 양해각서(MOU) 체결

원자력의학원(원장 심윤상)과 국군 화생방방호사령부(사령관 장성근 준장)는 상호협력하에 방사능 테러 · 사고 통합대응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7월 9일 국군 화생방방호사령부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양 기관간 양해각서는 ▲군요원 전문교육프로그램 지원 ▲방사선 치료약품 지원 ▲방사능 오염측정 및 오염제거와 인체영향 추적관리 ▲화생방 테러대응 교육프로그램 지원 ▲방사선 비상진료 및 방사선관련 연구자료 공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 교환으로 양 기관은 민 · 군의 가용자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방사능 테러 · 사고시 비상대응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방사선 비상진료 워크샵 개최

최근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이 제정되고 정부에서 시행령을 마련중인 가운데 원자력의학원은 방사능 사고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료진을 대상으로 7월 1일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강당에서 방사선비상진료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대규모 사고 발생시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운영방안(임상무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 ▲방사선 상해자의 응급수술대책(이수남 마취통증의학과장) ▲방사선 상해자의 골수이식(박연희 혈액종양내과장)에 대한 내용이 발표 ▲교육이수자의 자격 부여방안 ▲방사선비상진료 관련연구 활성화방안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져 개선사항을 점검하였다.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에 따르면 방사능 재난 발생시 원자력의학원장은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를 원자력의학원 내에 설치하여 권역별로 지정된 10개의 방사선비상진료병원과 함께 방사선 상해자에 대해 의료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평시에는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방사능방재요원, 방사선비상진료기관장이 지정하는 방사선비상진료요원,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직원은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에서 방사선비상진료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현재 원자력의학원은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설치하여 센터내에 의사, 간호사, 방사선안전관리요원 등으로 구성된 2개의 방사선비상진료팀과 1개의 방사선응급수술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방사선비상진료요원 양성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한 ◎ 전 ◎ 기 ◎ 공 ◎ (주)

제3회 원자력안전마크 대상 선정

한전기공주식회사(사장 이경삼) 영광원자력발전소 제2정비실 원자로 2팀의 UGS(원자로 상부 내장물) 인양용 리프트 볼트 무게 상쇄장치' 가 제3회 원자력안전마크(KNSM)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 장치는 실린더와 조정장치로 구성, 압축공기 압력을 이용해 리프트 볼트 집합체의 자중을 지탱하므로 자유낙하에 따른 충격량을 감소시켜 기존 작업방법 보다 원자로부품의 손상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고, 또 협소한 작업공간에 작업자 1인이 작업을 가능케 해 실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치토록 했으며 국내 한국형 표준원자력발전 원자로 분해 · 조립 작업에 적용되어 원자력연료 장전 기간을 단축토록 했다.

작업자가 고안한 장치로 현장 적용성이 높고 사용 중 장치의 고장발생이 없어 작업결과의 신뢰도와 발전소 부품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력안전마크(Korean Nuclear Safety Mark : KNSM)제도는 원자력 안전문화의 정착과 안전의식 강화를 유도하고 원자력 관련 법인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원자력 안전에 기여한 기관, 기술, 제품을 분기별로 선정하는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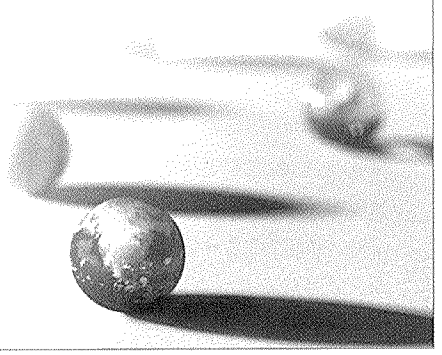
두 ◎ 산 ◎ 중 ◎ 공 ◎ 업 ◎ (주)

이라크 재건추진단 방문

이라크 전후 재건 추진단 20여명(카두임 기획부 국장 등)이 지난 3일 두산중공업(주) 창원공장을 방문했다.

이라크 추진단은 이날 두산중공업(주) 창원공장 12층 상황실에서 회사 홍보 영화 관람을 비롯하여 터빈발전기공장과 원자력공장 등 생산현장을 둘러봤으며, 이들은 특히 세계적 규모와 기술력, 발전설비 제작 과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김종세 부사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두산중공업(주)는 지난 20여년 동안 이라크 내 여러 기의 발전소 건설공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이라크 전후 재건사업과 중화학 공업 발전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장을 둘러본 카두임 국장은 "이라크는 현재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어 무엇보다 발전소 건설과 보수가 시급하며 두산중공업(주) 관계자들과 이라크내 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눠 정책 입안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두산중공업(주)은 1980년대 하타(Hartha) 발전소 개 · 보수 공사 등 이라크내 발전소 및 정유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다.